

## 朝鮮朝 農書의 書誌學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Agricultural Books  
published in the Chosun Dynasty

노기춘, 송일기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Roh Gi Chun, Song Il Gi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農事直說』, 『衿陽雜錄』, 『四時纂要抄』는 각각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農書로 申沓에 의해 한권의 책으로 편집됨으로서 綜合農書의 성격을 갖는 『農家集成』이 만들어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農家集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洪萬選은 『山林經濟』를 편찬하였으며, 『山林經濟』를 저본으로 徐有築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農書를 집대성한 『林園經濟志』를 편찬하였다.

### 1. 緒 論

韓國 農業의 발전과정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예컨대, 政治·經濟·社會的인 측면의 접근방법과 技術的인 접근법 등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는 접근방법에 따라 농업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農業政策史, 農業經濟史, 農業技術史 등으로 세분될 수도 있으며, 또한 農業史를 科學·技術史의 일환으로 간주하면 農學史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과학을 古典科學과 現代科學으로 大別하듯이 농학사도 古典農學史와 現代農學史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古典農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古典農書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고전 농서 자체가 농업기술의 체계화와 원칙을 함유하고 있고, 또한 시대에 따른 농업기술의 발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朝鮮時代에 편찬된 農書 중 64종에 대하여 書誌學的 측면에서 形態分析과 內容分析을 통해 農書 상호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가를 밝혀보고, 이를 바탕으로 朝鮮朝 農書의 시대별 원류를 고찰하는 한편, 農書의 발전계보도를 구성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朝鮮朝 農書의 書誌的 分析

본장에서는 64종의 농서에 대한 형태분석과 조선

조 주요 농서 3종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2.1 농서의 형태분석

64종의 農書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筆)寫本 49종, 木版本 14종, 古活字本 5종, 新活字本 9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2종 이상의 판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총 13종으로 특히 『農家集成』은 木版本, 活字本(顯宗實錄字本), 寫本 3종의 판종이 현재 모두 전해지고 있다.

64종에 대한 農書를 각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본 결과, 조선 초기에 편찬된 農書 중 5종(撮要新書는 寫本으로 전해오던 것을 1894년 木活字로 간행) 모두 木版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초기의 農業振興에 대한 指導層의 깊은 관심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寫本이 많이 편찬된 조선 중기 이후도 농업에 대한 지도층의 관심이 부족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이전에 편찬 간행된 農書를 중간 또는 복각하였다.

다음은 64종의 農書 중 특히 木版本 15종과, 活字本(新活字本은 제외) 5종 등 총 20종의 刊本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형태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란을 보면, 20종의 農書 중 四周雙邊 19책, 四周單邊 12책, 上下單邊·左右雙邊 2책으로 총

33책(異版 포함)이 조사되었다.

둘째, 界線을 분석하면, 총 33책 중 有界 31책, 無界 2책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魚尾를 분석하면, 총 33책 중 花紋魚尾 24책, 黑魚尾 5책, 無魚尾 4책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行字數를 살펴본 결과, 행자수는 일정한 양식이 없지만, 10행20자가 약 36%, 12행24자가 21%, 10행17자가 약15%로 조사되었고, 또한 同一農書도 刊行時期에 따라 행자수가 다르게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2 農書의 內容分析

조선시대에 편찬된 農書 64중에 대하여 내용을 主題別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一般農書 37종, 蠶桑書 6종, 救荒書 및 고구마관계서 9종, 經濟作物書 4종, 花卉書 2종, 기타 6종이 편찬되었다.

본절에서는 64종의 農書 중 조선조 농학의 큰 흐름을 형성한 『農家集成』, 『山林經濟』, 『林園經濟志』 등 3종의 農書가 다루고 있는 작물의 品種名(代表項目)을 대비하여 상호 이동관계를 살펴보았다.

『農家集成』은 전체 85항목으로 『農事直說』 14항목, 『衿陽雜錄』 11항목, 『四時纂要抄』 60항목으로 중복항목은 12항목으로 중복된 것을 제외한 순수항목은 73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農家集成』 속의 『農事直說』은 세종대에 편찬된 『農事直說』과 대비하여 본 결과 品種數에서도 菽豆 1종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農事直說』은 초간본이 나온 이후로 조금씩 증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四時纂要抄』는 총 60항목으로 『農家集成』에서 가장 많은 작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農事直說』 10항목, 『衿陽雜錄』 8항목이 중복되어 있다. 그러나 『四時纂要抄』는 『農事直說』에서 다루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그 항목만을 제시하고, 그밖의 품종에 대해서만 그 재배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洪萬選의 『山林經濟』는 전체 102항목으로 이는 『農家集成』의 73항목에 비해 29항목이 추가되었다. 『農家集成』의 73항목 중 『山林經濟』에 수록된 항목수는 59항목으로 『農家集成』에 언급되어 있지만, 『山林經濟』의 목차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이나 항목명이 다르게 쓰여진 것은 총 14항목으로 조사되었다.

『林園經濟志』는 총 219항목으로 『農家集成』의 품종수에 비교하면 146항목, 『山林經濟』와 비교하면 117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農家集成』과 『山林經濟』에 수록된 항목이 『林園經濟志』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46항목으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본 결과 32항목은 품종명이 다르게 나타나 있거나 또는 대표항목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와같은 것을 살펴볼 때 나머지 14항목도 본 연구자가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본문에서는 대부분 다루고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農書 3종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農家集成』의 편성내용을 『山林經濟』식으로 나타내면 총 16門중 <治農>편에 해당되고, 또한 그 내용은 『林園經濟志』의 16志 중 <本利志>의 '植藝'항으로 이동되어 더욱 세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農書의 引用分析

본장에서는 朝鮮朝 農書를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조선 초기부터 간행된 각각의 農書가 그 후에 편찬된 農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引用分析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農書의 효시가 된 『農事直說』은 이후에 편찬된 여타의 農書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衿陽雜錄』은 『農家集成』에 합편 간행된 이후 『海東農書』, 『深農小抄』, 『林園經濟志』에서 많은 부분이 인용되었다.

조선은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오면서 壬亂과 胡亂 등 두 차례의 큰 전란을 맞았다. 兩亂의 혼란으로 조선전기의 農書가 전래되는 것이 거의 없어 農書의 보급을 통한 농업기술의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란직후 許筠은 『農事直說』의 한계를 인식하고 『農事直說』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閑情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許筠이 『閑情錄』 治農편을 저술함에 있어서 저본으로 삼은 것은 明代의 刊本인 『陶朱公致富奇書』였다. 許筠의 『閑情錄』은 『山林經濟』와 『林園經濟志』에서 많은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閑情錄』은 새로운 내용을 수록한 農書였지만, 조선중기의 어려운 사정하에서 개인에 의해 편찬되었으므로 널리 간행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農書의 보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찬으로 간행된 것이 『農家集成』이었다. 본서는 『農事直說』을 중심으로하여 편찬된 것으로, 간행된 이후 일정시기 동안 조선농업의 지침서가 되었다. 『山林經濟』는 『農家集成』을 저본으로 하였고, 『海東農書』, 『深農小抄』, 『林園經濟志』, 『竹僑便覽』 등의 농서도 본서를 많은 부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農家集成』에서도 일정한 한계와 결함이 표출되어 새로운 農書가 요청되는 배경이 되었고, 17세기 말 부터 18세기 중엽 사이에 많은 農書가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처음 편찬된 農書는 『菴經』으로 본서는 『閑情錄』과 마찬가지로 중국농학을 수용함으로써 양란후의 피폐한 조선농업을 진흥시키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다. 『菴經』의 편찬에서 주자료가 된 것은 中國農書 중 특히 『齊民要術』과 『農桑輯要』 등의 인용에만 충실하였을뿐 당시의 圖定農書인 『農家集成』에서는 한 귀절도 인용하지 않았다. 『菴經』의 이러한 결함때문에 후세의 農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겨우 『深農小抄』, 『林園經濟志』 등에 인용되었다.

『菴經』에 이어 새로이 편찬된 『山林經濟』는 『農

家集成」의 農學과 技術體系를 그대로 따르고 그 技術內容을 충실히 인용하고 있다. 이후 『山林經濟』는 『農家要訣』, 『攷事新書』, 『海東農書』, 『課農小抄』, 『林園經濟志』, 『海東農書』, 『農政會要』 등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山林經濟』는 刊本으로 인행되지는 못하고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山林經濟』도 社會的 要請에 부응하여 『增補山林經濟』 및 增補本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18세기 말경 國內 農業事情의 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농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農書의 편찬 계획은 1798년(정조22) 국왕이 『勸農政求農書繪音』을 반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朴齊家의 『北學議』는 이러한 정부의 농정책에 호응하여 제출된 것이지만 農業技術學으로서의 農學이 아니라, 農業經濟學으로서의 農書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正祖의 繪音에 응지하여 進疏한 農書 가운데 農書로서의 체계가 가장 완벽한 『課農小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農學의 기반위에서 중국의 最新 農書를 통하여 中國農學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다시 우리 農學의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課農小抄』를 편찬하였다. 그렇지만 『課農小抄』에 표출되고 있는 중요한 農學사상은 종래의 우리 農學의 주류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농업의 결함 모순을 타개함에 있어서는 그 방안을 『農家集成』의 農學의 이념이나 방법론에서 해결하고자 하지않았다.

徐浩修가 편찬한 『海東農書』는 정조의 『求農書繪音』에 應旨하여 제출된 것인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 農學의 주류를 이끌어온 『農家集成』, 『增補山林經濟』를 主資料로 사용하고, 중국의 최신 農書인 『農政全書』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農學의 체계화를 기도하였다. 비록 徐浩修의 사망으로 완성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後出 農書인 『林園經濟志』에 영향을 끼쳤다.

조정의 農書 편찬계획이 있었던 무렵에 또한 『千一錄』이 禹夏永에 의해 편찬되었다. 본서는 당시의 시무책 전반 또는 이와 관련되는 여러문제를 논한 것으로서 그 전부가 하나의 체계적인 農書로 편찬된 것은 아니었다.

徐有梁에 의해서 以上의 農書를 포괄하여 편찬된 『林園經濟志』는 『山林經濟』의 기반위에서 여러 農書의 자료를 발췌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조선조 農書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山林經濟』의 農學의 체계를 계승하여 그것을 완벽하게 확대 발전시켜준 農書로 韓·中農學을 총망라 한 것이다.

이후 1830년대에 崔漢蔭에 의해서 편찬된 『農政會要』는 淸朝官撰인 『授時通考』를 주요 자료로 이용하면서, 간헐적으로나마 『增補山林經濟』와 『古事新書』를 인용하였지만 지극히 한정된 몇곳에 불과하였고, 『農政會要』에서 朝鮮農書를 인용하는 방법

도 『授時通考』를 인용한 다음 그 편말에 附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農政會要』는 『林園經濟志』의 편찬방식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朝鮮朝에 편찬된 農書들의 저본이 된 農書는 『農事直說』, 『農家集成』,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등으로 밝혀졌다.

### 3. 朝鮮朝 農書의 系統

近世朝鮮의 時代區分은 일반적으로 時間의 길이에 王代交替를 참작하여 대부분 初期, 中期, 後期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農學의 각도에서도 이 시대 구분에 맞추어 서술하는 것이 一般化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고는 農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대구분을 따르지 않고 朝鮮農學의 체계를 계승한대표적 農書를 중심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을 하였다.

1) 조선시대 農書 刊行의 효시를 이룬 『農事直說』과 2) 兩亂 後의 혼란속에서 농업재건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農事直說』, 『旡陽雜錄』, 『四時纂要抄』 등 3종의 農書를 합쳐하여 편찬 간행한 『農家集成』, 3) 『農家集成』의 결함을 보완하고, 우리 農學의 학적체계를 재정립한 『山林經濟』, 4) 朝鮮朝 農書의 총 완결본인 『林園經濟志』, 5) 西歐農法의 受容期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4종의 農書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朝鮮朝 農書의 계통을 설명하고 이것과 함께 3장의 引用分析을 근거로 하여 朝鮮朝 農書의 系統圖를 작성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4. 結 論

朝鮮朝에 편찬된 農書를 書誌學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밝혀 보았다.

첫째, 64종의 農書 중 木版本 15종과 活字本 5종, 총 33책을 形態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㉑ 변란의 형태는 四周雙邊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㉒ 본문의 각 줄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界線이 대부분 사용되었다. ㉓ 魚尾는 약 73%가 花紋魚尾로 간행되었다. ㉔ 行字數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으나 同一 農書도 간행시기에 따라 행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核心農書 3종에 대한 內容分析 결과 『農家集成』을 『山林經濟』에 대비하면 <治農>편에 해당되고, 『林園經濟志』와 비교하면 <本利志>의 '種藝'항에 해당된다. 또한 品種分析 결과 시대의 흐름에 비례하여 崔급 品種數도 증가하였고, 재배법의 서술과 품종명이 다른 것은 『山林經濟』 14항목, 『林園經濟志』 32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農書에 대한 引用分析 결과 조선조에 편찬

된 農書들의 저본이 된 農書는 『農事直說』, 『農家集成』,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등 이고, 조선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農書는 『農事直說』, 『農家集成』, 『山林經濟』, 『林園經濟志』이었음이 밝혀졌다.  
 네째, 따라서 核心農書를 근거로 하여 朝鮮朝에 편찬된 農書의 원류를 고찰해보면 ①朝鮮 農書의 成立期(1392년-1492년 경): 조선의 농업현실에 맞는 農書를 편찬하는 시기로 『農事直說』과 『衿陽雜錄』 등이 편찬되는 시기. ②朝鮮 前期農書의 集成期(1493년-1655년 경): 조선조 前期農書인 『農事直說』

『衿陽雜錄』, 『四時纂要抄』가 합쳐되어 『農家集成』이 만들어지는 시기. ③朝鮮 農書의 發展期(1656-1766년 경): 『農家集成』의 결함을 보완한 『山林經濟』가 편찬되고 『山林經濟』를 보충하여 『增補山林經濟』가 저술되는 시기. ④朝鮮 農書의 集大成期(1767-1850년 경): 『山林經濟』를 저본으로 朝鮮朝 農書를 집대성한 『林園經濟志』가 편찬되는 시기. ⑤西歐農法의 受容期(1850-1910년): 開港과 함께 西歐文物이 수용되면서 동시에 西歐農法이 조선에 도입되는 시기 등 5기로 나누어 조선조 農書를 종합정리하였다.

<표 1> 朝鮮朝 農書의 系統圖

